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7월 5일(주일) 제1056호



뜨거운 열기 아웃리치로 이어간다!

카운트다운 종료 ... 청년 4,567명 예배자, 선교사로 헌신
대청 2,496명 해외 21개국, 국내 54개 지역 아웃리치

청년들을 위한 예배·선교 컨퍼런스 '2015 카운트다운'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 장충실내체육관은 말 그대로 열광의 도가니였다. 4,567명의 청년들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께 헌신한 선교사

가 되기로 작정했다. 장·단기 선교사는 물론 올 여름 아웃리치에서 뜨겁고, 아름답고, 맛있는 신앙을 꽃 피우기로 작정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는 7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여름 아웃리치에 돌입한다. 해외 21개국 42개팀 627명, 국내 54개 지역 80팀 1,889명이 산 넘고 바다 건너 아웃리치를 간다. 무려 2,496명이 참가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열방에서, 땅 끝에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온누리교회 청년들의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관련기사 6-7면〉

/ 정지은 기자 jjj@onnuri.org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행사 시작

선봉은 '건강한 교회 세미나' ... 11월까지 이어져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행사가 막 올랐다. 선봉은 '건강한 교회 세미나'가 맡았다.

건강한 교회 세미나는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열렸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와 그의 아내 제리 스카지로가 강의했다.

피터 스카지로 목사 부부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영성)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멈추고 쉬라"고 권면했다.

〈관련기사 4-5면〉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행사는 11

월까지 이어진다. 7월에는 하용조 목사 기념관 준공식, 추모예배, 9월에는 특별새벽기도회, 온누리교회 30주년

사발간 10월에는 선교사 초청행사, 부흥비전집회, 리더십영성수련회, 올라한반도(가칭), 11월에는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포럼과 선교 열린 포럼 등이 열린다.

일 정	행 사	비 고
6월 29~30일	건강한 교회 세미나	
7월 27일~8월 1일	하용조 목사 기념 주간	
29일	하용조 목사 기념관 준공 감사예배	가족 중심 예배
29일	故 하용조 목사 4주기 추모예배	저녁 7:30 / 모든 캠퍼스
9월	30주년사 발간	
9월 7~26일	특별새벽기도회	모든 리더십 대상
10월 2~13일	선교사 초청행사	온누리교회 5년이상 파송 선교사
4일	창립 기념 주일	
6~8일	부흥비전집회	저녁예배
8일	비전컨퍼런스	해외비전교회 담당목사, 비전위원 초청
9일	리더십 영성 수련회	오전 10시~오후 5시 / 서빙고 온누리교회
9일	올라한반도(가칭)	저녁 6:30~10시 /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11월 3~6일	한국 글로벌 선교지도자 포럼	OMSC(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 협력
10~11일	선교 열린 포럼	

차세대, 본격 여름사역 돌입

여름캠프, 아웃리치 8월 말까지 이어져

차세대사역본부가 전국교사강습회 '여호수아 캠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여름사역에 돌입했다. 지난 4일 서빙고 차세대 유치부를 시작으로 다음달 14일 대전 유년부까지 한 달여 동안 여름캠프가 이어진다.

11일에는 인천 유치부와 서빙고 영아부가 각 교회에서 여름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차세대 아웃리치에는 36개 팀 724명(국내 8팀 191명, 해외 28팀 533명)이 참가한다. 8월 2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차세대 여름 아웃리치는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됐다.

서빙고 파워스테이션이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6~7일 일정으로 남아시아 1국에 다녀온 것이 시작이다. 7월 9일부터는 부천 꿈팡이 중국 대련, 15일에는 서빙고 꿈팡 JDS kids가 남아시아 F국으로 아웃리치를 간다. 파워웨이브 FT(Frontier Teens)는 동아시아 B국과 남아시아 H국으로 아웃리치를 갈 계획이다.

/ 정지은 기자

인물_ 만나고 싶었습니다 >> 2면

기획_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만들기 >> 4-5면

대청_ 2015 카운트다운 현장 >> 6-7면

“집사님은 저희의 아버지입니다!”



탈북 청소년을
친자식처럼 돌보는
‘민경일 집사’

자유, 꿈, 희망을 찾아 한국에 온 탈북민이 약 2만 8천명이다. 그들은 마중물이다. 북한 선교의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는 탈북민들에게 집중하고 있다. 탈북민과 북한선교를 위한 예배, 목회적 돌봄,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 선봉에 ‘하나공동체’가 있다. 한국 사람들과 탈북민들이 하나 된 신앙공동체다. 탈북민들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도록 섬기고 있다.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탈북민들을 섬기는데 헌신한 이가 있다. 그 주인공은 하나공동체 민경일 집사다. 그는 탈북민을 섬기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북한선교의 시작은 탈북민 사역”이라고 단언하는 그를 만났다.

민경일 집사의 주일은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다. 양재 온누리교회 2부 성가대 연습이 7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성가대 연습이 끝나면 2부 예배를 섬긴다. 그리고 11시 30분까지 또 성가대 연습을 한다.

그 시각, 하나공동체 소속 탈북 청소년들이 교회에 도착한다. 민 집사는 그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다. 친아빠처럼 먹고 대화를 나눈다. 하나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후 4시다. 이어지는 순 모임, 뒷정리까지 마치면 저녁 6시다. 이른 아침부터 이어진 사역에 피곤할 법도 한데 민 집사는 쉬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가는 탈북민 청소년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 혹시 그들이 배를 곯는 것은 아닌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지 궁금해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빨라야 9시다.

주중에는 더 바쁘다. 일하는 틈틈이 휴대폰에 저장된 수많은 탈북 청소년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대화를 하고 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한 뒤에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다. 탈북 청소년들의 SNS를 보면서 근황을 살펴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이다. 민 집사의 이런 일과는 어제 오날 일이 아니다.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하기는 해도 그녀만큼 최고의 후원자도 없다. 가끔 퇴근길에 탈북 청소년들에게 간식을 사다주기도 한다. 그는 탈북 청소년들의 아빠다.

“아빠들이 자녀에게 전화해서 뭐 사다줄까라고 묻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탈북 청소년들은 친딸이고, 친아들이거든요.”

가끔은 경찰서 출입도 한다. 문제를 일으킨 탈북 청소년들 때문이다. 합의도 하고 변호사를 만나기도 한다.

토요일에는 하나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기숙사 지원사역을 한다. 기숙사에서 자내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밑반

찬을 만들어주는 사역이다. 또 정기적으로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을 방문해 예배를 섬기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하나원 ‘나들이 사역’도 시작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로 나온 탈북 청소년들에게 멘토가 되어 주는 사역이다. 한국사회가 낯설고 적응하는데 힘이 될 수밖에 없는 탈북민들에게 돕는 손길이 되어 주려고 시작했다. 민 집사의 매일은 탈북 청소년을 섬기는 것으로 시작해 탈북 청소년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그 꼬마(?)와 만남 이후...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게 된 것일까. 민 집사가 북한선교를 마음에 품은 것은 2000년부터다. 관찮은 사업이 있다고 해서 중국 연길에 방문한 적이 있다. 막상 가보니 들은 정보와 많이 달랐다. 속은 것이었다. 속상했지만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관광이나 하자고 마음먹었다. 저녁식사를 하러 호텔을 나왔는데 탈북 꼬마가 그에게 다가왔다.

“남조선 사람 아십니까? 남조선 사람은 돈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딱한 마음에 그 아이를 식당에 데려갔다. 그 조그만 아이가 불고기 백반을 게 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세 그릇이나 먹었다. 혹시 탈이 날까봐 그만 먹으라고 말려야 할 정도였다. 그러자 그 아이가 말했다.

“또 언제 먹을지 모르는데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 해요.”

식사를 하는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던 민 집사가 이연실색했다. 나이가 많아 봐야 초등학교 정도밖에 보이지 않던 그 아이가 20대 중반 청년이었던 것이다. 지금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그 꼬마(?)와의 만남을 통해 탈북민 사역에 관심

을 갖게 됐다. 그날 이후 민 집사는 탈북민들을 섬기기 위해 기회만 되면 중국(북한 접경 지역)을 왔다 갔다 했다. 30~40차례나 다녔다.

“탈북민 사역을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 돈을 많이 벌면 이 사역을 하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실 줄 알았거든요.”

잘못된 기도와 생각으로 위기가 닥쳤다. 사역에 대한 마음도, 사업도 바닥을 쳤다. 자신의 욕심과 헛된 마음을 깨달은 민 집사는 2009년 JDS(예수 제자학교)과정을 이수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 사업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탈북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마음먹은 이후부터 상황이 나아졌다. 민 집사는 본격적으로 탈북 청소년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공동체 문을 두드렸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당시 많은 탈북 청소년들이 “저 아저씨, 한 달 안에 그만둘거야?”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탈북 청소년들의 아빠가 됐다. 그들을 위해 사라면 발벗고 나서서 사람이 됐다.

“탈북 청소년은 함께 섬겨야 합니다”

탈북 청소년 한 사람이 한국 사회와 교회에 정착하기까지는 민 집사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다. 올해 서울 소재 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입학한 A 자매는 어릴 때 엄마와 함께 중국으로 탈북했다. 한족 문화에 동화되어 자랐다. 한글을 완전히 잊었다. 그녀가 뿌리를 찾아 한국에 왔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녀를 민 집사가 도왔다. 여러 봉사자들을 연결시켜줬다. 한글을 깨우치기 위해 서강대 어학당 선생님, 영어를 가르쳐 줄 J4U 청년, 수학을 가르친 성가대 집사님 등 10명 가까운 봉사자들이 그

녀 곁에 있었다. 그 자매는 3년 만에 검정고시를 마치고 국어교육과에 입학했다. 그 자매의 꿈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한다. 민 집사를 포함한 여러 봉사자들의 기도와 헌신적인 돌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실 민 집사는 인터뷰 요청을 수차례 거절했다. 자기 자랑으로 비취지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동역자를 찾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지켜봐 주신 것처럼, 우리도 탈북민을 지켜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고 묻는 상처받은 탈북 청소년들을 기다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탈북 청소년 사역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그의 모습에 탈북 청소년들이 마음을 열었다. 그들이 민 집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집사님은 저희의 아버지입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탈북 청소년 사역

양재 하나공동체

탈북민과 북한선교에 뜻이 있는 자제들이 모인 예배 공동체. 주일 오후 2시 양재 JDS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기숙사 사역

기숙사반찬 지원 및 주중 지원 사역
문의: 민경일 집사 010-5476-1406

하나원 방문사역 및 나들이사역

방문사역: 하나원 방문, 예배 돕고 순모임 인도
나들이사역: 하나원 수료한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을 돕고 친구 되기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성장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2:12~14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아버지로, 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으로 성장하십시오.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릴 적 고향집 근처에 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게 되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우연히 고향집 근처에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충격을 받았습니

다. 그 친구의 몸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몸이 자라지 않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러한 안타까운 병이 영적 성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육체가 자라지 않는 것은 안타까워하면서 영적 생명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모순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영적 성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 갑니다”(엡 4:15-16).

“도리어 우리 주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께 있기를 바랍니다”(벧후 3:18).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편안한 삶, 더 안락한 삶, 더 쉬운 삶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통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것은 새가 나는 훈련을 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롭게 날수 있도록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

은 지 오래 되었다고 영성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교회생활이 익숙해졌다고 그것이 곧 영적 성장에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활동이 많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지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과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적 성장을 이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지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을 계속 이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12-14절).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제의 변화입니다. 원문을 보면 시제가 바뀝니다. 12, 13절은 현재시제인데 14절은 과거시제입니다.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방금 전에 쓴 것을 과거형으로 바꿈으로써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입니다. 만약제가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표현하면 현재시제를 과거시제로 바꾼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시차를 두는 것입니다.

성도가 경험해야 될 세 가지 영적 성장

세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12절에 자녀들, 13절에 아버지들과 청년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호칭은 육체적인 나이와 영적 성장의 단계

를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어거스틴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호칭을 자녀의 신앙 수준, 아버지의 신앙 수준, 청년의 신앙 수준으로 영적 성장의 단계로 해석했습니다. 이 호칭은 모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견해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여’라는 호칭이 특정 단계에 있는 성도들만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들을 일컬을 때 ‘자녀들이여’라고 했습니다. 노년의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들을 자녀들처럼 여겼습니다. 자녀들이 나오고, 아버지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는 순서는 구약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 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요엘 2:28).

여기서도 아들과 딸들이 나오고, 늙은이가 나오고, 젊은이가 나옵니다. 아들과 딸들은 자녀들이고, 늙은이들은 연세가 많은 분이고, 그 다음이 청년들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모습을 호칭을 통해 표현한 것입니다. 이 호칭이 구약에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경험해야 될 세 가지 영적 성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호칭의 변화에는 분명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죄 사함을 경험하는 단계가 있고,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죄 사함의 은혜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해야 될 세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역을 연령별, 호칭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영적 성장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뤄야 할 세 가지 영역이 무엇일까요. 첫째 자녀로서의 영적 성장입니다. 12절과 14절 초반부를 읽겠습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됐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12, 14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성숙을 이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 죄 사함입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부모의 품입니다. 때로 자녀들은 잘못을 해도 부모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용서에 대한 기대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들의 죄를 용서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고, 그의 죄를 용서해주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 사함의 교리를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얻는 지식으로 여긴다면 그때부터 영적 성숙이 멈춥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으면 그때부터 의인이라고 가르치는 구원과의 교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의롭게 된 것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득실거린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용서받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를 측정해보려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영적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영적 성장

둘째, 아버지로서의 영적 성장입니다. 13절 후반부와 14절 중간부를 읽겠습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13-14절).

아버지로서의 영적 성장은 육체의 나이와 믿음의 나이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영적 수준이 어린이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젊지만 영적 아버지로 성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

(13편에 계속)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영성) 만드는 방법



지난 29~30일 열린 건강한 교회 세미나.

일단 멈추고 쉬어라!

바쁘고, 빠르면 문제 발생 ... 멈춤, 휴식, 기쁨, 묵상이 해법

감정 억누르지 않고, 가계도 점검해 죄의 패턴 지워야

현대인의 삶은 분주하다. 분주한 삶을 사는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영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범위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한다.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영성의 영향력
“목회와 가정이 단단히 잘못되고 있었다”**

나는 건강한 정서를 가지지 못해 사역 초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23년 동안 뉴라이프 펠로십 교회(New Life Fellowship Church) 담임목사로 섬겼다. 6~7년 동안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했다. 남미, 아시아, 중동 등 73개국에서 온 다양한 민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목회가 전성기에 접어들 무렵 내 영성에 적신 호가 켜졌다. 내 목회와 가정이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회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 변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제자 양육방법을 모색했다. 성경공부 시간도 늘려봤다.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금요철야예배와 새벽예배도 해봤다. 내가 실시한 모든 사역은 성경의 진리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인가 빠져 있었다. 성도들이 변화되기는 하지만 깊이 있는 변화가 없었다. 화합되지도 않았다.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는 자기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안 좋은 습관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아내와 나는 대학에서 만나 7년 동안 교제하고 결혼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기대했다.

남미에 가서 스페인어를 배워 뉴욕에서 스페인어와 영어로 사역했다. 네 명의 딸도 낳았다. 7년 동안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사역하는 속도가 줄지 않았다. 스테프들이 지쳐갔고, 끊임없이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

나는 아내에게 “1년만 참아”라고 이야기했다. 아내는 나에게 “정말 못 참겠다”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잖아. 이것도 못 참아”라고 이야기했다. 늘 ‘하나님 카드’를 내밀었다. 아내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차마 대면하지 못했던 수면 아래 잠긴 빙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 무엇인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 빙산의 모습을 떠올려보자. 대부분의 사람

들은 어떤 순간에만 자신의 깊은 속내를 드러낸다. 우리는 남들에게 내 모습의 10퍼센트나 보여줄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남들 눈에 보기 좋은 사람, 공손한 사람, 정기적으로 순모임에 참석하고 술과 담배를 끊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만 나누고 있다. 하지만 존재의 뿌리는 변하지 않았다.

기존의 영성 모델들은 수면 아래 잠긴 90퍼센트 중에 일부만 다루고 있다. 문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조금도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살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깊이 다뤄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이 내가 변화되기 원하는 부분들을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리김, 교만함, 위선, 판단)는 죽어야 한다. 그러나 선한 부분(기쁨, 음악, 아름다움, 웃음)까지 죽이면 안 된다. 건강한 욕구와 즐거움을 잘 분별해야 한다.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할 8가지 를 제시한다.

첫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하는 것. 둘째 거짓말하는 것. 셋째 잘못된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 넷째 분노, 슬픔, 공포를 부인하는 것. 다섯째 비난하는 것. 여섯째 넘치도록 하는 것(over-functioning), 일곱째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여덟째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사는 것

이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참을 추고, 기뻐하고, 우울할 때는 눈물을 흘려야 한다. 시편은 감정을 표현한 책이다. 하나님은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셨다. 느껴지는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 갈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원칙이다.

첫째,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은 소멸되지 않는다. 둘째, 완전한 변화를 위해 인식은 필수적이다. 셋째, 건강한 공동체는 스스로의 모습을 알도록 요구한다. 넷째, 감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때 ‘정서적 위기’
삶과 영성을 명백히 분리시킬 수 없다**

나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아버지와 온갖 미신에 심취한 어머니 사이에서 성장했다. 형은 대학을 그만두고 통일교에 빠졌다. 어머니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쓰러져 입원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엄마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다. 공부도, 일도 열심히 해야 했다. 기쁨, 행복함, 즐거움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 나 스스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완벽주의가 내 인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가정도, 목회도 모두 일로 느껴졌다.

반면 나의 아내는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했다. 아홉 명이 매일 같이 저녁을 먹었다. 광장히 친척이 많은 대가족이었다. 친척, 조카 등 가족들과 사이도 광장히 가까웠다. 하지만 자기의견이 강했고



제리 스카지로 사모

피터 스카지로 목사

자기에게 부끄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아내는 그 문제를 심리적 가계도를 그리면서 인식했다. “착하게 굴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도구였다. 다른 사람과 협상하는 법을 몰랐고 차이점을 존중하지 못했다.

우리 부부처럼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지 못한다.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더 이상 감정들을 억누를 수 없을 때 가족이나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억눌린 감정들이 표출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가족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리더십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한다. 이 말은 삶과 영성을 명백히 분리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모든 세대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구조가 있다. 세대마다 안 좋은 습관과 관계가 있다. 한 세대의 저주가 다음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가족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영향은 적어도 3~4대에 걸쳐 지속된다.

가족의 갈등구조는 거짓말하는 습관을 낳는다. 편애하는 습관, 가족관계 단절, 원만하지 못한 부부 관계도 만들어낸다. 우리는 가계도를 점검해 가족에게서 전해지는 죄의 패턴을 지워야 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위한 제안 ‘슬로우 다운’과 ‘데일리 오피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일종의 여행과 같다.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과 사랑의 연합이 없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사실 리더십으로 오래 섬기면 섬길수록 위험하다. 왜냐하면 기술이 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 온전히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구획화(부분으로 나누는 것)다. 무질서한 리듬도 장애물이다. 삶과 신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구획화의 문제점이다. 교회에서 일하고, 미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교회 리더십에게 사역은 인생이 아니다. 예수가 교회 리더십의 인생이다.

어떻게 하면 삶의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 우리 부부는 2003년과 2004년에 수도원을 다니며 ‘슬로우 다운 라이프’를 배웠다. 삶의 리듬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고요와 정숙, 침묵에 시간을 할애했고 휴대폰과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다. 어떤 잡음도 없었다. 고요함 속에서 허점을 없애기 시작했다.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그때부터 선교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시 27:4).

빠르면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없다. 나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슬로우 다운과 데일리 오피스(The Daily Office)를 제안한다. 슬로우 다운은 말 그대로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데일리 오피스는 예수님께 뭔가 뜬 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함께 있는데 묵적이 있다. 묵상과 안식을 삶에 적용해야 정서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고 내 삶에 도움이 될지를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침묵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임재를 사모하며 침묵을 지키는 것이 슬로우 다운의 핵심이다.

나는 아내와 영성을 통합하고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병산의 내면도 들여다보고, 가계도 점검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를 줄이는 것이었다.

나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하나님을 위해 세상에 살고 있는가.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만 한다.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 일하고, 기도하고, 쉬고, 일하고, 기도하고 쉬는 것이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도 일로 느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 문화에는 리듬이 없다. 24시간 주 7일 전전만 있다. 창조 질서를 보라. 창조하고, 안식했다.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나열해야 한다. 안식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는 선물이다.

동역자와 영성을 지키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물어보면 된다. 엔진 오일에 불이 들어오면 영성에도 적신호가 켜진다. 몇 년 전, 이집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억지로 일해야 했다. 절대 안식을 취할 수 없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때와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학벌과 실력, 배경을 묻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심지어 교회 규모도 묻는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다. 유진 피터슨은 안식일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경적 안식은 네 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멈춤, 휴식, 기쁨, 묵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그냥 쉬는 것과 안식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별해 준다. 히브리어로 ‘사바스(Sabbath)’는 ‘일을 멈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일단 멈추고 쉬어야 한다. 현대인들은 일이 너무 많다. 보고서 작성, 이메일에 답하기, 전화 메시지에 답하기, 통장 잔고 확인하기, 집안 청소 등 할 일이 태산 같다. 분주함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려야 한다.

안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도 묵상해야 한다. 어떻게 안식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각자에게 맞는 방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영성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다.

* 지난 6월 29~30일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건강한 교회 세미나 강사 피터 스카지로 목사의 강의를 요약·정리했습니다.

참가자 인터뷰

목회자부터 영성을 돌보고...

소병지 목사, 박정숙 사모
(장재중앙교회)

“온누리교회 농어촌 선교 팀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외부의 여건과 환경보다 내 안에 있는 정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압박

관념이 있었다. 농어촌교회를 빠르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부담감과 막중한 책임감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서두르게 됐다. 이런 나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부담감으로 비춰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목회자부터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때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목회자에게 없는 것을 성도에게 줄 수 없다”

김승수 목사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본부장)

“바쁘게 사역하다 보면 자칫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개인적인 영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지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뜻깊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사랑,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배웠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성도에게 줄 수 없다’는 말씀이 인상 깊었다. 목회자인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성도들에게 줄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건강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권형준 목사, 공남순 사모
(하늘샘교회)

“목회자가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세미나에 참석했다. 교회를 개척한지 6개월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서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믿음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서적 문제해결과 사랑의 연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내와 함께 참석해서 더 좋았다. 건강한 교회와 가정은 이루어지면 목회자부터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침묵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청년들

2015 카운트다운 주일연합집회 무려 4,567명 참석
“나는 예배자, 선교사” ...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로 결단

“당신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빛이 반짝였다. 하나 둘씩 커지던 불빛이 어느새 장충실내체육관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하나님께 헌신한 예배자, 온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 살겠다고 결단한 4,567명의 청년들의 눈빛도 반짝였다. 지난 주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5 카운트다운 연합집회는 말 그대로 빛의 향연이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청년들 모두가 주인공이었다. 살아 숨쉬는, 영광보다 뜨거운 2015 카운트다운 연합집회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지난 주일(28일) 장충실내체육관 체육관 인근 식당과 가게에 청년들이 북적였다. 카운트다운 연합집회가 시작하려면 아직 두 시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북새통이다. 일찍부터 순도임을 하거나 순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예배를 기다리는 청년들의 표정에 설렘이 가득하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장충체육관 입구에는 열감지기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었다. 드디어 체육관 문이 열렸다. 대학부는 1층, 청년부와 성인은 2층으로 일시분리하게 입장했다. 카운트다운의 숨은 주인공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섬김은 이곳에서도 빛났다.

무려 4,567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원유경 목사 and 홀로암팩트의 열정적인 찬양으로 집회가 시작됐다. 그들의 뜨거운 찬양은 청년들을 지성소로 인도했다. 나날 할 것 없이 두 손 들고 부르짖으며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청년 2,496명이 아웃리치 간다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부르심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날 박종길牧사는 ‘Come to Worship’을 주제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재훈 담임목사는 ‘Go to the Nations’을 주제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다.

카운트다운 연합집회의 백미는 ‘FA 선교사 헌신 작정’과 ‘아웃리치 발대식’이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많은 청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결단했다. FA, TP, OSOM, OPMS, Better World 해외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서약했다. 이어진 아웃리치 발대식에서는 대학청년 대표가 아웃리치 선언문을 낭독했다. 올해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는 해외 21개국 42팀 627명, 국내 54개 지역 80팀 1889명이 산 넘고 바다 건너 복음을 전하러 간다. 2,496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아웃리치다.

대학청년부 본부장 김승수 목사는 청년들에게 “각자가 가진 빛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권면했다.





현장에서 만난 청년선교사들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은 수많은 청년 선교신자들을 배출해왔다. 그들은 FA, TP, Better World 등 단기선교사로 헌신하거나 장기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에서 선교신자로 서약하고 실제로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을 만났다. 그들은 여전히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다. 예수님을 닮은 청년들이었다. 그들이 청년 선교사로 섬기면서 경험한 은혜 꾸러미를 풀어놓았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김은영 자매
(여호수아공동체)

카운트다운 집회에서 단기 선교사로 지원했을 당시 제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20대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꼭 드리고 싶어서 헌신했지요.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선교를 다녀오면 서른 살인데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그 두려움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결정하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20대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남아시아 M국에서 사역했습니다. 국내훈련과정부터 선교지에서 사역한 6개월 동안의 시간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선교지에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 언어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일상적 대화가 가능해지다보니 그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는 낯선 곳이고 열악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교지에서 보내는 하루는 그 어떤 안락함보다 큰 행복을 줍니다. 선교사로 사는 것이 결코 험난하고 힘든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선교지에서 보낸 그 시간을 선택할 것입니다.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한발씩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이 최고의 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선교는 고난이 아니라 기쁨”



김현아 자매
(J4U공동체)

5년 전 학교선배의 소개로 온누리교회에 와서 처음 참석한 집회가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에 헌신하게 된 것은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선교에 조금씩 젖어들었다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에 감동하고 안제부터인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따라하는 것이 내 평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2년 전 FA 단기선교를 통해 하늘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중동 A국에서 사역했습니다. 한 지역에 머물면서 관계전도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가서 땅 밟기와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무슬림들이 매일 다섯 번씩 메기를 향해 기도하듯이 저도 어떤 형태로든 매일 다섯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고 배웠습니다.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슬람과 기독교 교리 논쟁으로 이어졌고 제 마음이 사랑에서 분통으로 바뀌는 경험도 했습니다. 스스로 깨치고 무너지고 또 다시 일어서는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또 해외선교사로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 마음을 다잡기 위해 카운트다운에 참석했습니다. 선교를 꿈꾸는 모든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교는 내가 드리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교는 고난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뿐”



황경훈 형제
(SNS공동체)

군대 말년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지내면서 교회와 알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내 안에 없던 평안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전역하고 온누리교회에 왔습니다. Acts 29 비전을 선포하는 하용조 목사님의 메시지와 비전에 반응하게 되었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FA 4기로 중동 A국에서 사역했습니다. 8명의 청년, 2명의 교역자님과 함께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캠퍼스 사역과 한글반 사역, 지역 리서치 및 관계전도사역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팀장과 총무로 섬겼는데 자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팀장과 교역자님의 목소리도 듣고 팀원들과 소통을 돕는 다리 역할도 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선교지에서 보낸 시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익숙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울고 웃는 소중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기까지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기쁨에 소망을 두셨기에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기에 익숙한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나그네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일본선교포럼

러브소나타와 일본선교, 그리고 영향력

일본 교계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심어줘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 전역에는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를 증명하는 행사가 지난 26일과 27일 도쿄 오다이바에서 열렸다. 러브소나타 일본선교포럼이 바로 그것이다. 러브소나타 일본선교포럼은 지난 8년 동안 울려 퍼진 러브소나타를 돌아보는 귀한 자리였다. 일본선교에 대한 비전과 정보를 공유하는 '선교의 장(場)'이었다. 이 포럼에는 일본 참가자 48명, 한국 참가자 28명이 참석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포럼에는 한일관계자 76명이 참석했다.

러브소나타와 온누리교회는 떼려야 뗄 수 없다. 러브소나타는 故 하용조 목사의 일본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러브소나타는 현재까지 일본 전역에서 22번이나 울려 퍼졌다.

러브소나타 집회가 열린 곳마다 귀한 열매들이 맺혔다. 일본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다. 분리되어 있던 일본교계가 연합을 시작했다. 복음의 불모지 일본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움트기 시작했다.

러브소나타를 위해 지금까지 1853개의 교회가 연합했다. 일본인 73328명이 러브소나타 집회에 참석했다. 그 중에서 2757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일본 전체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현실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일본 교계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반향을 일으켰다.

“러브소나타는 화합이요, 감사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포럼을 한 마디로 웅변해주는 표현이다. 일본교계는 러브소나타 집회를 열어준 온누리교회에 감사를 전했고, 한국 온누리교회는 믿음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가르침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미네노 타츠히로 목사(러브소나타 일본전국실행위원장)는 “러브소나타는 하나님이 일본 교회와 맺은 계약이라고 믿는다”면서 “같은 지역에 있어도 협력하지 않고 서로 알지 못했던 교회들이 러브소나타를 통해 협력하게 된 것이 가장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오비히로와 시모노세키 교회들은 아직도 지역 교회 모임을 하고 있다. 러브소나타 집회는 끝나도 일본 복음화를 위한 기도모임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앙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센다이 지역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센다이 지역에서 초교파 모임이 생겨났다. 모두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다.



일본의 부흥을 위해 손을 맞잡고 합심기도를 하고 있다.

러브소나타가 가져다 준 선물, 장벽 허물고, 협력할 수 있다는 자신감

러브소나타 일본선교포럼은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나카이 노부요시 목사(가쿠다이선교학원장)가 ‘Love Sonata Before&After’를 주제로 각 지역 실행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내용을 발표했다.

러브소나타는 일본 교계에 장벽을 허물고,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러브소나타에 차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카이 목사는 “다음 세대에 신앙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은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지방에서 대도시로 떠나고 있는 실정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세대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일본 기독교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화두가 아닐 수 없다.

그는 러브소나타의 영향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러브소나타처럼 한국과 일본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일본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일본이

변화될 것입니다. 희망과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다면

두 번째 세션은 나카무라 사토시 목사가 맡았다. ‘한일 크리스천들의 일치와 협력을 위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올해가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되는 역사적인 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이 여러 나라를 침략했던 죄를 반성하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소신껏 전했다. 평화를 약속하고, 화해와 우호를 다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서로를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과 일본 교계가 협력하는 러브소나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는 또 하용조 목사를 회고하면서 그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하용조 목사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의 상처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다면 세계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대서 장로(이천선교본부)가 나카무라 목사의 발표가 끝난 뒤 강단에 올랐다. 정 장로는 “일본과 한국의 성도들이 각 국가의 보편적인 국민 의식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 두 민족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했다.

일본선교에 큰 획 그리는 통합적 선교 방법 준비하고 실행하자

세 번째 세션은 문상철 원장(한국선교연구원)이 맡았다. ‘변형적 상황화: 일본 선교의 통합적 접근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국내와 일본에서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선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발표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CGNTV, 일대일 제자훈련, 아버지학교가 일본 상황에 접목하기에 적합한 선교방법이라고 했다. 앞으로 일본선교를 위해서는 궁극적 사역 목표 설정, 일본 선교 장기 계획 수립, 통합을 위한 노력 강화, 한국교회의 더 많은 소통과 협력, 문화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것이 일본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는 방법이고, 북한 선교와 세계선교를 잘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도쿄에서 열린 일본선교포럼은 한일 목회자들이 만나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포럼에 참석한 일본 목회자들은 온누리교회에 대한 감사인사를 잊지 않았다. 오비히로에서 온 무라타 목사는 “러브소나타를 통해 기도의 힘을 보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고, 고바야시 목사는 “러브소나타가 끝난 후에도 열매들을 계속 맺고 있다”고 했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캄보디아
음식 문화**

고기, 채소, 과일이 어우러진 영양식



신정빈 목사
(온누리M센터 캄보디아예배)

캄보디아사람들의 주식은 밥이다.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메뉴가 다르다. 대부분의 음식들은 기름에 볶은 것이 많다. 시가나 달다. 특히 국 종류는 새콤한 맛이 많이 난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유난히 신맛을 좋아한다.

‘머쭈유’는 베트남에서 들어온 국이다. 생선, 파인애플, 토마토 등을 넣고 끓이기 때문에 신맛이 많이 난다. 오래 전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쌀 국수 ‘꾸이띠우’와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불에 구워 얹은 ‘땃밤’ ‘바이썬쭈록’과 ‘바이썬모안’은 아침 식사로 인기가 높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놈빵바떼’는 프랑스식 바게트 빵에 햄, 같은 돼지고기, 오이, 피파야 생채, 통조림 생선 등을 넣어 먹는 샌드위치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통 요리 ‘놈반쪽’은 카레와 함께 먹는 국수 요리다.

캄보디아 예배공동체에서도 특별한 날이면 놈반쪽을 해 먹는다. 채를 썬 양배추와 오이, 숙주를 밑에 깔고 국수를 얹은 후 캄보디아식 닭고기 카레를 부어 먹는 놈반쪽은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형제자매의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음식이 있다. 바로 ‘언

썸’이다. 언썸은 찹쌀에 콩이나 바나나, 고기 등을 넣어 바나나 잎에 싸서 먹는 음식이다. 프쭈면이나 쫄썬남(사해)에 먹는 명절 음식이다.

후식으로는 우리나라의 녹두 같은 콩을 삶아 연유를 넣어 단팥죽 같이 만든 ‘버보’가 가장 보편적이다. 아주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캄보디아 요리에서 빠지지 않는 양념이 있다. 톤레삼에서 잡은 민물고기를 소금에 절여 만든 젓갈 ‘쁘라혹’이다.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요리다. 밥에 비벼 먹기도 하고, 다른 요리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가장 기본적인 양념으로는 라임, 생강, 레몬 잎, 마늘, 붉은 고추, 뿌라혹 등과 여러 향료, 조미료를 함께 절구에 빻아 각종 음식을 만들 때 넣는 ‘끄룽’이 있다.

캄보디아에는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같이 건물의 형태를 갖춘 식당이 많지 않다. 재래 시장이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포장마차 형태의 음식점들이 대부분이다. 길가에 텐트를 치고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를 가져다 놓고 음식을 조리해 판다. 또 자전거에 음식 재료들을 담은 진열장과 조리 기구들을 싣고 다니며 즉석에서 간단한 볶음면 ‘미차’나 ‘룻차’를 만들어 팔기도 한다. 바쁜 직장인들이나 아이들 간식으로 편리하게 먹을 수 있다.

열대기후 나라답게 열대과일들도 다양하고 풍성하다. 그 때문인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형제들은 과일을 참 좋아한다. 한국에서 나는 과일도 잘 먹지만 고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달고 새콤한 과즙이 풍부한 과일들을 무척 그리워한다.

수도 프놈펜을 벗어나면 집집마다 바나나와 코코넛, 망고 나무를 흔히 볼 수 있다. 이곳에서 때가 정 방문을 하면 가족 중 한 사람이 큰 칼 하나를 준비하고 맨 손으로 인원수만큼 코코넛을 따온다. 칼



외형적으로는 한국음식과 크게 차이 없어 보이는 캄보디아의 일반 가정식.

로 윗부분을 쪼개고 빨대를 꽂아주는 코코넛은 이곳 현지 직원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다. 방금 따온 싱싱한 코코넛을 마시고 나면 장시간 여정에 쌓였던 피로가 모두 풀린다.

4월에 가장 맛있다는 망고, 최상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캄캄의 두리안, 캄보디아의 오렌지 그로잉, 스톡가나(응과),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망고 스틱, 피파야와 잭후르츠 더위에 지친 피로를 한방에 풀어 주는 라임 주스, 여자들에게 좋다는 패션 후르츠 등 다양한 열대 과일을 맛볼 수 있다. 캄보디아의 바나나는 작고 단단한데 익기 전에 불에 구워 먹는 구운 바나나는 달지 않고 색다른 맛이 일품이다.

캄보디아 예배공동체는 매주 토요일마다 온누리M센터에서 캄보디아 음식을 요리해 먹는다. 토

요일에 일을 쉬거나 일찍 끝난 형제들이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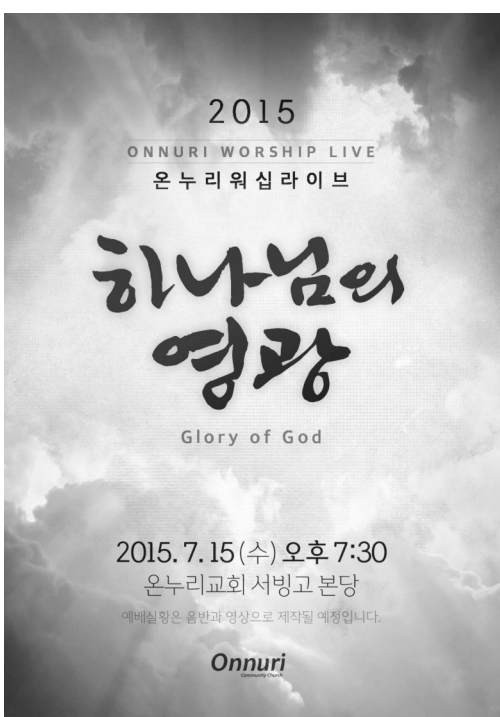
캄보디아 음식 역시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다. 토요일 저녁 매뉴는 국과 야채볶음, 반찬이다. 주일 아침에는 주로 ‘바이썬쭈록(돼지고기 땃밤)’이나 ‘바이차(볶음밥)’, 가끔 ‘버보모안(닭죽)’을 먹는다. 캄보디아 음식은 고기와 채소, 과일이 골고루 함께 어우러져 있다. 영양식이다. 향신료가 강하지 않아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맞는 부드러운 음식이 많다.

식탁에서 지체들과 고향음식을 두고 마주하는 시간은 우리를 한 식구로 묶어주는 중요한 교제의 장이다. 캄보디아 예배가 개척되고 3년 반 동안 매주 이름도, 빛도 없이 주방에서 요리로 섬겨준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공연 소식 | 앨범 발매

2015 온누리워십라이브 콘서트

15일 오후 7시30분 서빙고 분당



‘2015 온누리워십라이브(Onnuri Worship Live)’ 콘서트가 열린다. 7월 15일 오후 7시30분 서빙고 분당에서 막 오른다. 온누리워십의 네 번째 콘서트다. 이날 콘서트 실황은 음반과 영상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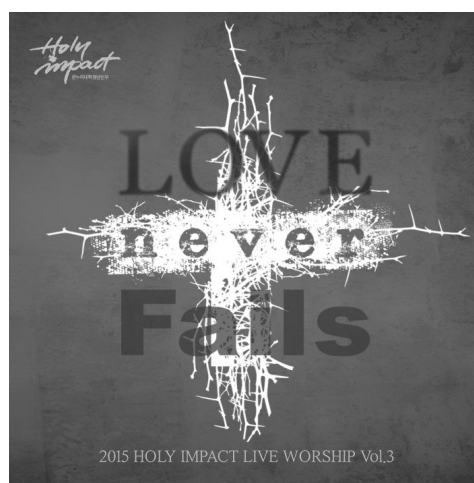
이번 온누리워십 라이브 콘서트는 ‘하나님의 영광(Glory of God)’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공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다.

문영재 목사, 최성석 목사가 인도할 예정이다.

문영재 목사(강남B공동체)는 “2015 온누리워십라이브 콘서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더 가까이가자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란다”며 성도들을 초청했다.

홀리임팩트 라이브 워십 앨범 발매

Love never Fails ... 기독교쇼핑몰서 구입 가능



홀리임팩트(Holy Impact) 라이브 워십 앨범이 발매됐다. 홀리임팩트가 발매하는 세 번째 앨범이다. 화요성령집회에 가득한 감동과 은혜를 앨범으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2015 홀리임팩트 라이브 워십 앨범의 주제는 ‘Love never Fails’다. 실패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라는 의미다.

이번 앨범에는 원유경 목사의 자작곡 ‘완전한 사랑 한없는 은혜’를 포함해 ‘높이 계신 주께 영광’, ‘나의 노래의 이유’, ‘아버지여 이끄소서’, ‘새 영을 부으소서’ 등 대학청년부

화요성령집회 등에서 성도들에게 사랑받았던 찬양 12곡이 수록되어 있다.

원유경 목사(SNS공동체)는 “시대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며 “홀리임팩트 앨범을 통해 새 소망이 싹트고, 새 꿈을 꾸는 새 날을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홀리임팩트 라이브 워십 앨범은 두란노서점과 갯피플 등 기독교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12000원.



부모초청 전도집회 참가자 41명 세례 받아

지난 1일, 서빙고 본당서 '행복드림 세례식'

65세 이상 부모초청 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의 열매가 맺혔다.

지난 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지난 5월 18일 부모초청 전도집회 행복드림 콘서트에 참석했던 부모 41명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식에 참석한 자녀들의 표정이 상기되어 있었다. 마침내 부모전도에 성공한 자녀들의 감회가 남다를 수 밖에 없었다. 세례를 받는 부모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자녀도 있었다.

온누리교회는 부모전도가 기도제

목인 성도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선봉에 부모초청 전도 집회 '행복드림콘서트'가 있다. 지난 5월 열린 행복드림 콘서트에는 부모 356명이 참석했다. 그들 중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참가자 248명(70%), 교회와 예수에 대해 긍정적 반응 72명(20%)이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세례자 간증



/ 김정근 어르신

“며느리가 참 고맙다”

나는 대한민국 땅 끝 마을 해남에서 세례를 받으러 왔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 덕분이다. 나는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믿는다. 며느리가 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극복하고 꿋꿋하게 생활하는 것이 측은하다.

우리 며느리는 성실한 성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고 실천하고 있다. 교회를 비난하던 아들과 집사들을 교회로 인도한 우리 가정의 전도사다. 나에게도 행복드림 콘서트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여비를 주면서 “아버님 이번에 꼭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하는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교회에 관심이 없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교인이 싫었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내가 며느리의 간곡한 요청과 설득에 마음이 움직였다.

착한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 번 믿어보자고 생각했다. 교회에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깊어졌다.

이제 내 나이가 팔십이 다 되었다. 언제가는 갈 곳을 가야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전북 임실 선거교회를 가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과 고양은평공동체 연합 아웃리치

서빙고 농어촌선교팀과 고양은평공동체 성도들이 전북 임실 선거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지난달 21일(주일) 농어촌선교팀과 고양은평공동체는 은평2차라방 2층 성도 20명이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선거리에 위치한 선거교회를 찾았다. 선거교회는 일제 강점기 때 세워진 교회로 김종윤 담임목사 내외와 20명이 채 안 되는 어르신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다.

이날 농어촌선교팀과 고양은평 아웃리치팀은 한방 진료, 말동무, 기도회 등으로 선거교회 성도들을 섬겼다. 선거교회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직접 농산물은 선물했다.

김금숙 집사는 “농촌지역 현장을 체험 하는 시간을 보냈다”면서 “잊지 않고 선거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고양은평공동체와 농어촌선교팀이 협력해 임실 선거교회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수 집사는 “여러 면에서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면서 “농어촌에 심은 작은 섬김의 씨앗이 결국 크고 소중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고백했다.

한편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은 대학 청년부 JM 공동체와 연합해 오는 8월 13일 진주시 초원교회에서 ‘광혜산마라톤&찬양집회’를 열 예정이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CGNTV 안테나 설치 교육 준비 중

아웃리치에서 안테나 설치하려는 공동체 대상

해외에서 사역 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외롭다. 사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매일매일 찾아온다.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친구가 없어 외로워하는 그들에게 CGNTV가 힘이 되어주고 있다.

일본 재일대한기독교교회 교단 소속의 88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카와니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두희 선교사(푸른초장 교회 파송)는 지난 5월 19일에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CGNTV를 만나게 되었다.

박두희 선교사는 “한국과 비교해

영적 충전시간이 부족한 일본에서 CGNTV를 통해 영적으로 채워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새 힘을 얻어 일본선교를 위해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CGNTV는 올 여름 아웃리치를 가는 공동체에서 안테나를 설치하고자 하는 팀들을 위해 안테나 설치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안테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러시아 연해주 지역 등 동아시아 지역이다.

문의: 02-786-1118

알립니다

온누리신문에서 2015년 여름 아웃리치 후기를 받습니다. 공동체, 차세대, 대학청년부, 의료선교팀 등 국내외의 아웃리치를 다녀온 간증을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 A4 1장, 글자크기 10

내용: 아웃리치 간증 또는 후기, 아웃

리치 현장사진, 글쓴이 사진

보내실 곳: onnuriweekly@gmail.com

문의: 02-3215-3196

일대일사역팀, 고건 장로 초청 특강 실시

일대일사역팀에서 고건 장로 초청 특강을 실시한다. 7월 12일 오전 8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에서 ‘IT인의 시각으로 본 Power of God's Word’를 주제로 열린다.

일대일 사역자는 물론 일반 성도들도 들을 수 있다.

일대일 사역팀은 “이번 특강을 통해

영성을 함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번 특강에서 고건 장로는 IT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제1기 대전 이혼자행복학교 참가자 모집

7월 30일~8월 1일까지 ... 선착순 30명

대전 온누리교회 제1기 이혼자행복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혼위기에 있거나 별거 중인 부부, 이혼한 남녀, 재혼을 준비 중인 남녀가 대상이다. 이혼자행복학교에 참여하는 동안 초등 학교 3학년까지 자녀를 돌봐준다.

이혼자행복학교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열린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오후 7시부터 7

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등록비는 3만 원이다. 한 부모 팀에 있는 사람은 무료(10명 한정). 선착순 30명.

입금: 하나은행(573-810032-41305, 온누리교회 새생활)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55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 김현준 기자

■ CGNTV <생명의 삶> QT 간증



/ 양정우 성도

섬김과 리더십의 연결고리

몇 달 전 인도 바라나시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올 들어 ‘섬기는 리더십’에 대한 궁금증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기독교적 리더십을 갖추고 싶은데 섬김과 리더십을 잇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내게 아웃리치는 좋은 기회였다. 고된 섬김을 체험하면서 자연스레 의문이 풀릴 거라 생각했다.

하루 종일 노방 전도를 하면서 골목길을 누벼야 했다. 인도의 치안에 대해 누누이 경고를 들었던 터라 계속 주위를 살폈다. 주황색 옷을 갖춰 입은 힌두교 수행자들에게 에워싸일 때면 긴장감이 더해졌다. 더 이상 누군가를 섬길 만한 여유가 남아 있지 않았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다.

잡자리에 들면서 아직 서먹한 팀원에게 쏘아붙였다. 형이 찌지 않고 이부자리에 누워 있는 나를 타박을 하는 순간 화를 참을 수 없었다. 오만상을 찌푸리며 더 이상 말을 걸지 말라고 신경질을 냈다. 다음날 잠에서 깬 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준 게 어찌나 고마웠던지. 섬기러 인도까지 왔는데 불화를 일으킨 내 모습이 허탈했다.

그날 아침 큐티는 부자청년 이야기(마가복음 10:17-10:31)였다. 부자청년은 어린 나이에 대단한 부자라고 기록될 정도로 재력가였다.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 말씀에 “어짐없이 지켜왔습니다”라고 말할 걸 보면 몸가짐마저도 뚝뚝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가 있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진 걸 모두 팔아가난 사람들에게 나눠 주라고 하셨다. 답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 있었다. 부자청년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만을 바라보던 시선을 주변 사람에게로 돌리는 것이었다.

이날부터 한 영혼과 더 이야기하려고 애썼다. 인도 아이들의 총기가 유달리 눈에 띄었다. 여행객들에게서 귀동냥으로 깨우친 영어 실력은 나보다 한 수 위였다. 하나님만 믿는다면 누구보다 탁월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들이었다. 사랑보다는 연필을 쥐어주며 하나님이 쓰시길 기도했다.

인도 바라나시는 태고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다.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IT공학박사도 새벽녘 갠지스 강가로 나가 정성스레 온 몸을 닦고 강물을 마시며 죄가 씻기기를 소원한다. 이러한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 인도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국에 돌아온 며칠 뒤 주일예배에서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섬김과 리더십의 접점은 세상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 쉴 틈 없이 일에 매달리다 보면 오늘도 나만 보고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옆자리에 앉아 있는 선배에게도 어제와 같은 몇 마디만 건넸을 뿐이다. 메마름에 익숙해지는 때 내 안에 사랑이 커지기를 기도한다.

■ 유아세례 간증



/ 아이: 박이현, 부: 박희열 모: 유정은 성도

믿고 기대하고 있다

첫째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을 때 예쁜 아이를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얼마나 감사하고, 벅찼는지 모른다. 첫째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을 즈음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우리 가정에 소중한 생명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그 때 태어난 둘째 아이가 어느덧 두 돌이 지났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주인이시다. 아이들의 자아가 형성될 때까지 양육하고 조력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자 역할이다. 나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늘 감사하다.

큰 아이는 선천적으로 안면비대칭과 일부 안면근육에 손상이 있다. 영구치가 절반 정도밖에 없어 유치가 빠지고 나면 나머지 이는 나지 않는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한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비대칭이 진행되는지 검사를 한 후에 치료할 수 있다고 했다. 웃거나 울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부모로서 정말 미안했다. 속상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런데도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찬양하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나는 하나님이 아이들을 책임져주시리라 믿고

기대하고 있다. 나는 이 아이를 비록 몸이 건강하지 않지만 마음은 건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나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평소 소나만큼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나며 자부했던 터라 충격이 매우 컸다.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큰 병에 걸린 것이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막막했다.

그때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의 간호사 출신 권사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좋은 의사선생님을 소개 받았다. 그 의사선생님은 장로님이셨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용기와 힘도 북돋아 주셨다.

만삭의 몸으로 병실 간이침대에 쏙그려 누워있던 아내의 모습은 죽을 때까지 내 가슴속에 남을 것이다. 둘째는 예정일보다 20일이나 먼저 세상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둘째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것을 다짐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정말 사랑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게 하셨다. 정말 감사하다.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한다.

■ 대형 카운트다운 봉사자 간증



/ 윤나래 자매(J4U공동체)

받는 기쁨보다 주는 행복

2015 카운트다운은 나에게 특별한 집회로 다가왔다. 집회가 개최되기 두 달 전부터 그랬다. 4월부터 카운트다운 서포터즈로 섬기기 때문이다. 나는 온누리교회에 온지 2년이 조금 넘었다. 그래서 카운트다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카운트다운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도 했다.

청년들에게 카운트다운을 홍보하기 위해 인쇄물을 제작하고, 이벤트를 구상하면서 카운트다운이 어떤 집회인지를 알게 되었다.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씩 더 커졌다. 매주 카운트다운 홍보를 위해 기도하고, 활동했다. 단순히 집회에 참석해달라고 홍보가 아니라 청년들이 카운트다운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카운트다운 서포터즈 활동이 마무리될 즈음 집회 당일 자원봉사자로 섬기게 되었다. 하루 종일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진행되는 집회 일정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즐거웠다. 섬김의 기쁨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나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고민과 걱정이 많다. 마음과 정신이 약해져 하루에도 몇 번씩 좌절감을 맞는다. 그래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더 기다려졌다. 처음에는 예배와 강의를 집중해서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자원봉사자로 섬기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나와 비슷한 시기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은혜의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에 임했다. 따뜻하게 나를 바라봐 주실 주님의 얼굴이 그려졌다. 사랑도 느껴졌다. 마음을 다해 섬기면서 내 안에 있던 좌절감과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평온한 마음으로 기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었다.

카운트다운 집회에 온 청년들에게 등록과 집회 장소를 설명해줬다.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확인했다. 내 마음에 작은 기쁨이 생겼다.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에 익숙해져버린 내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면서 더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기회였다.

청년들이 카운트다운 집회를 통해 회복되고 무엇인가를 받는 기쁨보다 주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 프리덤스쿨 수료 간증



/ 이현주 성도(가명)

내가 나를 용서했다

짜증과 무기력 그 자체였다. 사는 게 힘들고 재미없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았다.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았다.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와 씨름하는 것도 지쳤다. 피가 나고, 살이 뜰기도록 굶는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났다. 돈은 왜 이렇게 부족한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가득했다.

청년시절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만났던 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남편은 혈액암으로 투병을 해야 했고, 아이는 전신에 진물이 나는 아토피로 아파했다.

남편의 병은 나았다. 건강하게 내 곁에서 숨쉬고 있다. 아이의 아토피 증세도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지치고 힘들었다. 행복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남편이 프리덤스쿨에 가지고 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다. 아이와 떨어져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내 상태는 좋지 못했다.

프리덤스쿨 첫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지, 기대보다 두려움이 컸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엉엉 울고 말았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심장을 가진 자녀다. 내가 너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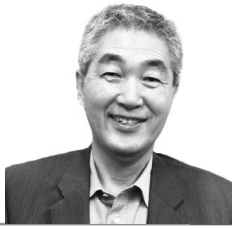
신뢰한다. 너는 나의 보석이다. 네가 그 곳에 있어 참 든든하다.”

나 자신을 찾은 것만 같았다. 수련회와 여러 강의, 조원들과의 나눔을 통해 무엇인지 모르지만 시원함을 느꼈다. 나의 이야기, 상처들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나눴더니 개운했다. 나의 약함과 어두움을 안전하게 쏟아낼 수 있는 프리덤스쿨이 정말 좋았다.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고, 안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좋았다. 프리덤스쿨은 진짜 공동체, 진짜 성도들의 모임이었다.

무엇보다 프리덤스쿨을 통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스스로에게 죄를 짓고, 그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게 만들었던 나를 용서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용서하셨으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내가 나를 용서한다.”

압력밥솥에 딱 찬 김이 조금씩 빠져나가기듯 막혀있던 것들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졌다. 롤모델도 생겼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그 아픔을 느끼고, 함께 울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장로칼럼 노홍규 장로

카운트다운을 마치며 드리는 감사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가운데에서도 6월 28일부터 사흘 동안 청년들을 위한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들과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회자들, 그리고 멘토 4567명이 함께 모여 열두 차례 예배와 선교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의력, 상상력, 사랑, 열정을 예배로 드릴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열정 뿐만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6월 28일 장충체육관에 모였던 4567명의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온 세상을 향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모였던 청년들이 부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나라에 거룩한 교회를 세워갈 것과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헌신할 것을 서약했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복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 21세기의 나실인, 다윗과 같은 예배자, 다니엘과 같은 기도자, 또 바울과 같은 선교사로서 평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의 크리스천 청년들을 축복하

여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을 부어주셔서 부르심과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심을 따라 결단하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주역으로 세워주십시오. 우상숭배로 갈 길을 잃은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과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품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을 바라는 이웃들과 하나님의 탄식하심을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부름 받은 곳에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2015년 여름 아웃리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복음을 들고, 예배를 세우러 떠나는 모든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안전하게 돌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본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청년들을 리더십으로 양육하고, 직장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권사칼럼 김정옥 권사(강남C공동체)

“나는 할 수 있다”

힘들 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사람의 고통은 말로 다하지 못한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피멍들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기쁨도 슬픔도 위선처럼 느껴진다.

내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을 때 하용조 목사님과 정호옥 목사님께서 입지 않는 옷을 판매(열린장터)하는 사역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셨다. 강남C공동체 순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시작한 그 사역이 지금도 여전하다.

나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양재 온누리교회로 옮겨왔다. 그곳에서 나를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봉사했다. 그러나 나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았다. 모래가 물에 씻겨 내려가듯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5년 동안 병원을 내 집 드나들 듯 다녔다. 어둠 속에서 헤매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이 염려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었지만 나는 그것을 무시했다. 그들의 위로를 애써 외면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하면 쉽게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하나님을 찾지도, 기도도 할 수 없었다. 주일예배, 기도모임, 순모임에 매달려 보았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았다.

그 당시 새벽 5시쯤 CGNTV를 보고 있는데 문득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막상 하려니 가슴이 두근거렸다. 넘어질 것처럼 어지러웠다.

내 몸은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다.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그때부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상관하지 않고 그림, 여행, 합창, 운동을 시작했다. 날마다 나 자신과 씨움을 한지 3년이 지났다. 지금도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뚜렷하다.

그 시간을 뒤돌아보면 나를 일으키기 위해 하나하나 계획된 것 같아 감사한 생각이 절로 든다. 40kg까지 내려갔던 몸무게도 54kg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올해 4월 살바타운에 입주 했다. 그곳에서 나는 기독교 모임을 갖고 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 12명과 만나고 있다. 장로, 권사, 집사들과 Q1나눔도 하고 있는데 감사하다. 얼마나 기쁘지 모른다. 앞으로도 내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다. 내 친구는 주님 밖에 없다.



신앙에세이 이기진 목사(강남C공동체)

성도와 교회, 목사의 최선

2001년 9월 11일 인명피해 약 3,500명, 경제적 손실 약 65조 4,300억 원,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불러일으킨 9.11테러가 발생했다. 정서적 공황에 빠진 시민들 앞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테러 발생 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흉물스러운 잔해 사이를 누비며 구조 활동을 벌이는 소방대원들과 어깨동무를 한 그는 전 국민을 향해 이렇게 연설했다.

“오늘 밤 슬픔에 잠긴 모든 사람들과, 세상이 산산조각으로 깨졌다고 느끼는 모든 어린이들과, 안전과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해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진 주님이 이들의 아픔을 덜어주시길 것을 저 역시 기도할 것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전율과 비장함, 위로와 용기, 치유가 담긴 한 나라의 지도자의 연설이 온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2015년 6월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감리교회에서 무차별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9명의 성도가 사망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족들이 범인을 용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6일 총기난사 사건의 희생자인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의 장례식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했다. 그는 추모연설에서 “선량함이라는 은총을 발견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은총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뒤 잠시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이어진 침묵의 끝자락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단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더니 장례식에 참석한 6,000명이 동시에 찬양을 불렀다. 이 장면은 미국 전역에 생중계 되었다. 미국 언론들은 이 장면을 두고 ‘오바마의 대통령 재직 기간 중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한 서사시’라고 보도했다.

부시나 오바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잠시 접어두겠다. 그러나 위의 일화를 접하면서 목사는 어떤 의미인가를 떠올려 봤다. 죽음의 자리 한 가운데 생명의 웅크림이 있다. 혐오가 빚어낸 살상의 현장 한 가운데 은총의 기다림이 있다. 마치 단단한 과일 속에 묻혀 있는 씨앗처럼, 죽음의 현장은 놀랍게도 생명을 바라보는 자리이다. 인간의 한계 선상은 전능하신 생명의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접점이다. 그 접점의 자리에서 땅의 불행을 바라보며 함께 울되 영원한 은총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대한 서사를 노래하는 자리가 바로 목사의 자리가 아닐까? 그것이 바로 성도(聖徒)의 자리이며,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教會)의 자리이다.

피터 코리건은 <소비의 사회학>에서 “오늘날 백화점은 소비주의(Consumerism) 사원에서 예배를 보도록 유혹한다”고 말했다. 백화점에서는 마치 중세 성당 같은 분위기가 모방되고 있는 반면 오늘날 교회는 백화점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애를 쓰는 아이러니를 심각하게 지적한 것이다.

생명과 소망을 노래하지 못하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 지나간 추억을 붙들고 있는 박물관 같은 교회, 종교적 취향을 충족하기 위한 극장 같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오히려 죽음이 엄습한 현장 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생명을 노래하며, 은총과의 깊은 만남을 바라보게 하는 곳이 교회이다. 현실에 드리워진 죽음의 두려움에 같이 함몰되지 않는 것, 깊은 슬픔의 시간 속에 의연히 서 있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 목사의 최선이 아닐까.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성장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37장 3절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느지막이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더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스피전 목사는 그것을 올바른 번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나온 내용을 직역하면 ‘원로들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원로(장로)는 ‘자켄’인데 자켄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형용사가 많지 않습니다. 형용사적인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사를 씁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정의의 아들’이라고 쓰면 그것은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명사로 형용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원로들의 아들’이라는 것은 ‘원로 같은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지혜와 성숙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홉의 여러 아들 중에 가장 늦게 태어난 아들은 베냐민입니다. 요셉이 느지막이 태어난 아들이라서 더 사랑했다면 요셉보다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녀였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성숙은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자신도 기뻐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품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선생들은 많은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선생들은 많은데 한 영혼을 사랑과 인내로 양육하는 영적 아버지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선생은 많은데 아버지가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많은 시대의 교회는 한 영혼을 책임지고, 양육하기 때문에 사쟁이가 없습니

다. 버려진 자녀가 없습니다. 모두가 돌봄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선생이 많고 아버지가 없는 곳에는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영혼은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십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분을 안다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법칙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예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영적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청년으로서 영적 성장

셋째, 청년으로서 영적 성장입니다. 13절 후반부와 14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13-14절).

청년들은 힘이 세고 강합니다. 육체의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육체의 강함은 오히려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넘치는 에너지가 과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실수가 많고, 잘못 행하는 것은 에너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삼손의 강함입니다. 삼손은 힘이 세고, 근육이 많고, 에너지가 많았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은혜 안에서의 강함입니다. 악함 속에서의 강함입니다.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강함입니다. 육체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강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뚝이 같다는 것입니다. 오뚝이는 넘어져도 바로 일어납니다. 쓰러져도 바로 일어납니다. 은혜가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강함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강함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강함이 아닙니다. 이 강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강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악한 자를 이깁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면화되어야 합니다. 위기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평상시에 말씀의 지배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면화된 말씀이 위기 순간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악한 자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사함을 받는 은총을 날마다 누리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섬리, 계획과 뜻을 깨닫는 아버지로 성숙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악한 자를 능히 이기는 청년으로 성장하십시오.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죄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는 영적 성장을 이루십시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Talk Talk 열왕기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열왕기 16 : 엘리사의 뼈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는 심성은 착하지만 가난한 온달이 운 좋게 고구려 평강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 나라의 용감한 장군으로 성공한다는 인생역전극이다. 그래서 아내 잘 만나 인생 핀 남자를 ‘온달족’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에 따르면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전해주는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는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다는 성공신화가 아니라 ‘신의(信義)’를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평강공주와 결혼해 무술을 연마한 끝에 무관이 된 온달은 신라가 고구려의 한복지역을 차지하자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 출전한다. 그는 “내가 신라에게 빼앗긴 땅을 다시 찾기 전까지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그는 전사하고 만다. 부하들이 그의 시신을 관에 넣어 운반하려고 했지만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 빼앗긴 땅을 되찾지 않고서는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는 온달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죽어서도 그 맹세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평강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위로했을 때야 비로소 관이 움직였다고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고 북이스라엘을 아람 군대로부터 지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살았던 엘리사. 그의 스승 엘리사는 불발과 불병거가 나타나 회오리바람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는 병들어 죽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열왕기하 13:20-21은 비록 단 두 구절이지만 그가 죽어 뼈만 남았어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모압 사람들은 자주 때를 지어 나타나 북이스라엘을 습격하고 약탈했다. 대규모 군대가 아니라 강도떼였던 것 같다. 한번은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할 때였다(이스

라엘 사람들은 땅속에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동굴에 안치한다). 모압 강도떼가 출몰한 것을 보고 겁이 났던지 그만 시신을 엘리사의 뼈가 있는 동굴에 던져 버리고 가버렸다. 그런데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나 두 발로 일어나게 됐다!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는 엘리사의 옷으로 상징되는 바 갑옷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술한 이적을 행했다고 할 수 있었다고 하자. 실제로 엘리사는 수백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때는 엘리사가 펄펄 살아있을 때였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의 시신은 이미 썩어 없어졌다. 뼈만 남았다. 시간이 제법 지났다는 말이다. 그런 죽은 사람의 뼈가 어떻게 시신을 다시 살릴 수 있단 말인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구약외경에 속하는 ‘집회서’ 48:13-14은 엘리사의 이런 놀라운 역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에게는 어려운 일이란 하나도 없었고 무덤 속에서도 예언자로서의 직분을 다하였다. 그는 살아 생전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으며 죽은 후의 업적 또한 신기하였다”(공동번역 개정).

이것은 엘리사가 승천할 때 엘리사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생명의 영이요 부활의 영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엘리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했던 성령이 위대한 것이다. 육신은 없어져도 성령은 이 땅에서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 가신다. 에스겔이 봤던 환상 역시 마찬가지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은 결코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자 살아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준다. 그런 것처럼 엘리사의 뼈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사건 역시 이스라엘의 회복

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계시록을 쓴 요한 역사 환상 가운데 놀라운 생기의 역사를 보았다. 계시록 11:7-11은 짐승(사탄의 세력)이 두 증인(교회를 상징)을 죽인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을 증언하다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순교할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발로 일어서게 된다.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생명의 영께서 다시 살릴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무덤에서 죽은 자가 집단으로 살아나는 일이 마태복음 27:51-53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기이한 일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장차 있게 될 성도들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뱀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을 전해주고 있다면, 마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이요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까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골고다’란 ‘해골의 곳’(the Place of the Skull)이란 뜻이다. 해골들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의 보혈이 흘러 내리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오직 성령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생명이다.